로컬플러스

김제시, 차량진입억제용 발라드 정비

김제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라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방지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볼라드 정비 예산을 수립하여 김제시 관내에 설치된 부적격 볼라드 405개소를 철거하고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볼라드 정비 공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인도위 불법주차 차량 근절 등 최소한의 기초질서 확립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성남시 모란시장 상인회 도농교류 활성화 자매결연 체결

부안군은 지난 6일 군청에서 부안군산림조합·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상인연합회 가축상인회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성남시 모란시장 상인회는 부안군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하고 부안군은 모란시장 상인회원들을 위해 부안군 편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성남시 모란시장 상인회와의 자매결연은 부안특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홍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남시 모란시장 상인회와 부안군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성남시 모란시장 상인회는 "천년의 솜씨로 만들어낸 품질 좋은 부안의 특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면 모란시장을 방문하는 성남시 소비자와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어 이번 자매결연이 더욱 반갑다"며 "시민들이 많이 찾도록 친절서비스를 향상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김제시는 전화를 이용해 365일 24시간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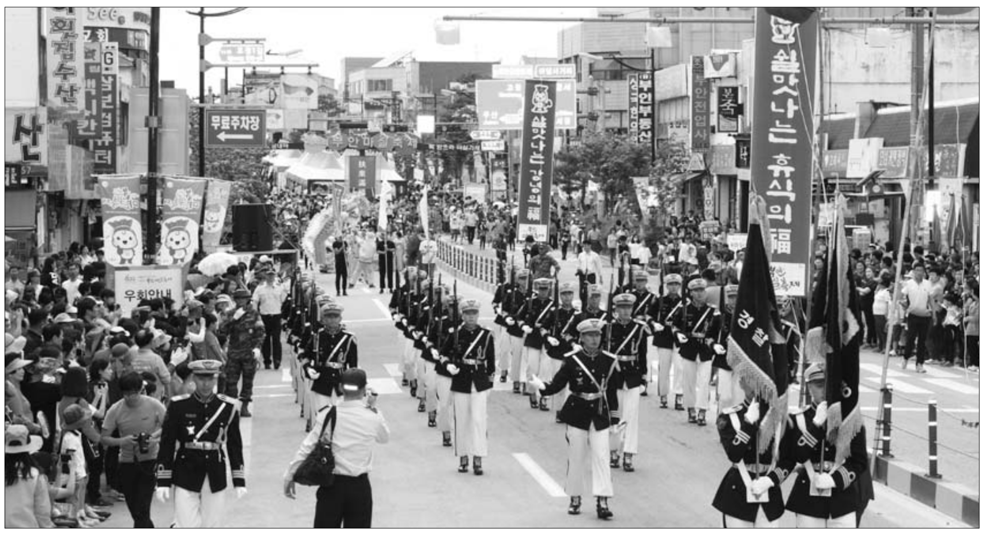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ARS 안내번호(080-540-3377)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할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조회된 세금은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및 가상계좌 등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결제확인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지방세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창구 납부,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운영되었으나, 금융기관 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방세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납세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 마실축제는 부안민의 특색과 전통문화를 비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졌다.

부안마실축제 성료 관광객 '호응'

45만 5천여명 찾아 전국 10대 대표축제 도약 발판 마련 평가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러 마실가세!'를 주제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린 제4회 부안마실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 부안마실축제는 부안민의 특색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구성해 크고 작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부안 곳곳에는 관광객 등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전국 10대 대표축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는 올 마실축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가운데 부안 전역의 행사장에 45만5천여명이 찾아 수백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행사장인 부안읍 서부터미널 메인무대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예술축제, 전시·판매 및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축제 첫날인 6일에는 인문학의 본향이자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고장인 만큼 13개 읍면별 특색을 살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기점인 부안 백산봉기를 재조명한 '부래만복 퍼레이드'가 최고의 볼거리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부안의 대표적인 제사유적인 수성당 개양할미에 관한 신화를 주제로 한 개막식 주제공연 '개양할미'와 매창 백일장 및 사상대회, 매창무용단 창작무용 등 '매창문화제'도 문향 부안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고 전통적인 당산놀이를 그대로 재현한 '마실 전통문화놀이'도 큰 관심을 끌었다.

둘째 날인 7일의 경우 '전국 청소년 예능경연대회'와 '뮤지컬 갈라쇼', '마실 열린음악회', '왕의 남자 탈춤 공연', '부안 맑은물총 페스티벌', '부안마실 청소년 플래시몹'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올 마실축제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중국교수단 등 주한 외국인 400여명이 부안을 찾아 글로벌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럽과 미국, 호주 출신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40여명은 7일 부안을 찾아 제4회 부안마실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물동이이고 달리기'를 비롯해 '부안음식 맛축제', '전통문화놀이' 등에 참여했다.

우석대와 전주대, 전주비전대 외국인 유학생 250여명과 원광대학교 중국교수단 50여명도 제4회 부안마실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결혼식 때 한복 입고 대동한마당'에서는 결혼식 때 입고 장롱에 묵혀뒀던 한복을 다시 꺼내 입고 1만여명이 강강술래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한마당을 연출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교월동, 소 구제역예방 백신 접종

78농가에 대해 13일까지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2,726두(78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제시와 접경한 충남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질병예방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예방접종은 작년 하반기 12차 일제접종 이후 추가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에 대한 보강접종이 이뤄지는 것이며,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 접종이 원칙이며 50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반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된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금번 일제접종 기간에 관내에 사육중인 모든 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소와 돼지에 대해서 일제 또는 상시로 접종하여 교월동에서는 구제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제류 가축사육 농가뿐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자 및 차량 통제, 가축질병 발생지 방문 자제 등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생활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방공 대피훈련 16일 실시

정읍시, 민방위의 날 맞아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이 오는 1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읍시는 지난 4일 민방공 대피훈련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협력회의를 갖고 전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6일 오후 2시를 기해 민방공 경보사이렌을 신호로 신태인읍과 8개 동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단순 대피훈련에서 벗어나 군경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도심 긴급자동차 비상차로 확보 훈련 ▲주요지점 전시통제소 점령훈련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등으로 실시된다.

도심 긴급 자동차 비상차로 확보 훈련은 도민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정읍시종합경기장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상자와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설정하고 군부대 차량과 정읍경찰서 교통차, 정읍소방서의 구급차, 소방차, 지휘차, 정읍시청의 민방위차, 구급차, 교통지도차량 등 모두 17대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 비상차로 확보훈련이 전개된다.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은 수성주공아파트, 정읍농협하나로마트, 삼화타운아파트, 신흥장미2단지아파트 지하대피소에서 중점 실시된다.

또 전시통제소 점령훈련은 정읍역사거리, 잔다리목사거리, 농소사거리 등에 군경 합동검문소를 설치해 지나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주요 시가지에서는 경찰과 해병전우회 회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등이 차량을 통제하고 여성민방위대 대원과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는 주민대피를 유도한다.

대피훈련이 진행되는 정읍농협하나로마트 대피소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고, 어린이와 학부모 등 모두 3천500명이 참석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샘골 꿈나무들의 한마당 잔치

어린이날 맞아 정읍 제일고서 공연과 기념식

제94회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정읍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형중)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하여 유성엽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우천규, 교육장 장성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고, 어린이와 학부모 등 모두 3천500명이 참석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식전행사로 난타공연과 태권도 시범, 밸리댄스 공연 등이 펼쳐졌고 기념식에서는 장관 및 도지사 표창, 시장표창, 국회의원표창이 이어졌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과 문화체험존, 민속체험마당, 힐링체험마당, 축하공연, 어린이 놀이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훌라후프 돌리기와 건강 줄넘기, 스트레칭 밴드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돼 온가족이 함께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S보드, 롤러브레이드 등 많은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